

Edda

카를 짐록 완역본 | 만프레트 슈탕에 개정판

북유럽 신화 **에다**
게르만 민족의 신화, 영웅전설,
생활의 지혜

임한순·최윤영·김길웅 역주

SNUPRESS 동서양의 고전 24

역주자

임한순 任漢淳, Han-Soon Yim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윤영 崔允瑛, Yun-Young Choi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문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김길웅 金吉雄, Gil-Ung Ki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독문과 교수

에다



에다 Edda

초판 1쇄 발행 2004년 8월 20일
개정판 1쇄 발행 2015년 6월 5일
제2개정판 1쇄 발행 2025년 2월 26일

역주자 임한순·최윤영·김길용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948-1 94850
978-89-521-1192-0(세트)

© 임한순·최윤영·김길용,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NUPRESS 동서양의 고전 24

북유럽 신화 에다

카를 짐록 완역본

만프레트 슈탕에 개정판

게르만 민족의 신화, 영웅전설, 생활의 지혜

임한순·최윤영·김길웅 역주

Edda

Translated and Annotated
by Han-Soon Yim, Yun-Young Choi, and Gil-Ung Kim



머리말

독일을 비롯하여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대부분 포괄하는 게르만어권에 서는 그리스·로마 신화만큼 완성된 신화 체계가 기록으로 전승되지 않았다. 고대 게르만 민족들에게 일상의 '실천적' 신화가 없었거나 빈약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문자문화가 늦게 발달한데다가, 4세기 이래 민족 대이동 이후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유일 종교로 전파되면서 게르만 민족 전래의 토착신앙과 신화를 거의 완전히 말살시킨 탓이었다. 그들의 고대 종교는 석조 신전과 같은 항구적인 종교 시설을 남기지 않았고, 루네 문자로 새긴 비문(碑文)이나 기타 신화 관련 발굴 자료도 소아시아나 로마어권에 비해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도 북유럽 신화집 『에다』는 언어와 문학, 종교와 신화 등 다방면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원래 구전되다가 13세기에 현재 형태로 기록된 이 서사시는 18세기 말에 시작한 낭만주의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았고, 특히 독일에서 본격적인 번역과 연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에다』에 담긴 창세신화와 신들의 이야기는 게르만족 공통의 신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고대 북유럽인들은 『에다』에 실린 다채로운 신화와 영웅담을 운문으로 낭송하고 들으면서, 신비롭고 성스러운 분위기에 젖거나 미적·오락적 긴장과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에다』의 우주론과 판테온 Pantheon(신들의 계보)을 포함한 신들의 이야기는 예컨대 미국인 케빈 크로슬리-홀런드가 수월한 산문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어로도 번역된 『북유럽 신화』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Crossley-Holland, Kevin (Editor): The Norse Myths, Random House (Paper) 1981. 서미석 옮김: 북유럽 신화, 현대지성사 1999] 이 책은 원전과 번역이 모두 신뢰할 만하지만, 『에다』의 전반부인 『신들의 노래』만을 재연하는 데 그쳤다. 『에다』는 800-1200년 사이에 기

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운문체 『고(古)에다』와, 이를 토대로 1220년경 스노리 스투를루손이 저술한 산문본 『신(新)에다』(일명 ‘스노리 에다’)로 나타난다. 현존하는 필사본 『고에다』가 이전의 필사본(들)을 토대로 종합 및 기록된 시기는 1270년경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에다』의 진정한 원본은 운문본 『고에다』이고, 이것은 『신들의 노래』와 『영웅들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두 부분은 주제 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체를 이룬다. 후반부 영웅시가의 핵심을 이루는 시구르드 전설은 독일 중세 영웅서사시의 금자탑인 『니벨룽겐의 노래』의 소재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록된 유럽 신화 가운데 그리스·로마 신화 다음으로 높은 완성도를 지닌 것이 북유럽 신화이다. 그 원본인 『고에다』는 난해하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주제에서 명료하고 매력적이다. 여기에는 고도로 지적인 창조신화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자잘한 행동규범까지 담겨 있다. 대체로 신화는 보편적·근원적 진실을 담을 수 있고, 신화의 진실은 그러한 속성 때문에 자주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에다』 또한 이런 점에서 고대 게르만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며, 잊혀진 과거의 흔적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그나뢰크’, 곧 인류와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들의 황혼’의 징후가 ‘벨루스파’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형제들이 반목하여/서로 쓰러뜨리고//사촌끼리 가문을/깨뜨리는구나.//대지가 핏음 내고/공중에 악취 날고//아무도 다른 이를/돌보지 않는구나.//[……] 도끼 시대, 칼의 시대/방패들이 부딪고,//폭풍 시대, 늑대 시대/세상이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말세의 증상일 수 있는 만큼 『에다』의 예언은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이다. 신들의 천국, 인간의 현세, 죽은 자의 내세에 펼쳐진 총 아홉 가지 ‘가르드’(뜰·터전)와 ‘헤임’(집·고향),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공간 전체를 단 한 그루의 거대한 물푸레나무 ‘위그드라실’이 지탱하고 있다는 『에다』의 우주론도 매우 인상적이다. 전쟁과 환경 파괴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하는 현대인이 어찌 이것을 어리석은 고대 민족의 망상이라고 비웃을 것인가.

『에다』 원본, 즉 『고에다』의 형식과 내용을 치밀하게 살피는 기초작업이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시도되지 않았다. 몇 가지 출판된 번역도 위에 소개한 예처럼 스투를루손 산문 해설본(『신에다』)을 독서용으로 재구성한 번안본에 기초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 신화집의 본모습을 가급적 정확히 읽고 파악할 수 있도록 『고에다』를 국내 최초로 번역하되, 가능한 한 원전의 형식까지 반영하여 울문 번역을 시도하였다. 집중적인 원전 조사와 분석, 그리고 외국 학계로부터 얻은 자문 끝에, 스위스에서 1995년 간행된 독일어본을 번역 원본으로 결정하였다. 이 책은 19세기 독일의 명망 있는 학자이자 고대문학 번역가 카를 짐록(Karl Simrock, 455면 참조)의 1882년 ‘수정 8판’을 토대로 만프레트 슈탕에가 상세한 해설과 도해를 덧붙여 출간한 것이다. 짐록의 번역은 1851년 초판이 간행된 이래 19세기에만 9판이 인쇄되었고, 현재까지도 가장 포괄적인 독일어본의 하나로 꼽힌다. 고대노르드어 (또는 고대아이슬란드어) 필사본을 직접 읽고 번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판본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짐록은 필사본 원문에 충실히 따랐다. 다만 그의 번역은 번호를 매긴 장별 노래의 배치에서 이따금 원본과 차이를 보이며, 여기에 더하여 주 필사본에는 없으나 그와 긴밀하게 연관된 다른 『에다』 시 3편(제38-40곡, 본 역서에서는 제외)이 『신에다』 끝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편집자의 개입은 고대어 원전의 전승 상태가 완전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작품의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대어 필사본의 유래와 서지학적 특성, 개별 구성단위의 내용 등은 편집자 슈탕에가 ‘후기’에서 자세히 해설했고, 우리 번역에 이 부분도 포함시켰다.

『고에다』와 『신에다』를 모두 수록한 것이 짐록 독일어본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중역을 피하고 원본 운문 『에다』를 초역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여 『고에다』에 한정하였다. 학술적 인용에 사용될 만한 원본 재현을 추구하되, 일반 독자의 교양 욕구에도 부응하려 하였다. 이런 뜻에서 책임 번역자가 해설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배경과 구조」를 새로 집필하고, 이번 번역의 계기가 된 연구논문 「유럽의 신화와 민담」(서울대학교 인문논총 특집 2002, 149면 이하) 일부를 발췌, 보완하여 부록으로 삼았다. 이 논문은 서

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1998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중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인문학의 학제간 협동에 의한 지역문화 연구’의 5개 세부과제 가운데 제4 과제의 총론 및 북유럽 신화 부분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 외에 원본을 보완하여 김길웅 박사가 편역한 색인도 『에다』의 다채로운 신과 영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유럽 신화를 처음 접하는 독자는 해설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배경과 구조」(497면 이하)를 먼저 참조할 것을 권하고 싶다.

원문 번역은 책임번역자의 총괄 아래 세 사람이 분담하였다. 『신들의 노래』는 최윤영, 『영웅들의 노래』는 김길웅, 전반적 해설을 담은 만프레트 슈탕에의 ‘후기’는 임한순이 맡았다. 번역진은 원문의 율격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부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영웅들의 노래』 가운데 제36곡은 책임번역자의 안을 채택하였다. 국어 율격의 전통과 가능성에 관해서는 국학계의 연구 성과 가운데 정병욱 교수의 선구적 업적 『한국고전시가론』(증보판. 신구문화사 1982)을 비롯하여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새문사 1986), 김대행: 『우리 詩의 틀』(문학과비평사 1989), 조동일: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 율격』(지식산업사 1996) 등에서 지침을 구하였다. 2001년 서울대학교의 율문연구 집담회에서 권두환 교수가 주신 한국어의 율격 이론에 관한 안내도 유익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문 번역에서는 출발어와 목표어의 율격적 기질과 전통을 함께 고려하되,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과 의문을 우리가 최선으로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율문 번역에 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의 서사시적 속성에 비추어,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이나 판소리의 율을 좀 더 적극 원용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수집에는 번역진 이외에도 뮌헨대학교에 유학 중인 차윤석 군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998년 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이 번역의 계기를 마련하신 오인석 교수께, 고유명사 표기의 통일안을 마련하신 공동 번역자 김길웅 박사께, 그리고 출간을 쾌히 승낙하신 서울대학교출판부에 깊이 감

사드린다.

2004년 8월 관악산 연구실에서
번역자 대표 임한순

우리의 국내 최초 완역본 북유럽 신화 『에다』(‘고에다’, ‘운문 에다’)가 간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일반교양과 학술적 이용을 두루 고려한 번역 목표에 비추어, 2004년 8월 초판 제1쇄에 이어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1월에 제2쇄가 나온 것은 작지 않은 성과였다. 폭넓은 독서계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출간되는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체제와 내용을 유지하되 첫째, 본문 전체를 원전과 대조하며 오류·오기를 바로잡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1995년 원전 간행 이후에 접근이 용이해진 고고학적 자료사진 또는 도판을 확충하고 각 자료의 해설을 보완하거나 새로 써서 본문에 배치하였다. 부록 ‘그림 해설’(491-495면)은 슈탕에 간행본을 번역한 것이므로 초판의 내용을 유지하며 일부 오기를 바로잡았다. 이곳의 해설은 본문의 각 도판 해설과 동일한 내용이나 일부 고유명사 표기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전의 2004년 개정판에 따라 색인 항목 한 개(482면 “프레이르”)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문헌목록도 보완하였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역주자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임한순

2015년 개정판의 2쇄가 2020년 간행되고 2024년 하반기에 이르러, 번역진 일동은 인명 등 고유명사의 원문을 가급적 고대 노르드어로 통일하여 그 발음을 표준으로 삼고, 번역과 해설을 각 역자/필자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독일의 주요 연구서 3건을 선별하여 문헌목록도 보완하였다. 이로써 이 책의 신뢰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확신하며, 추가 개정 작업을 쾌히 진행하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감사드린다.

2024년 12월
역자 일동



알스코그-티앵비데 석각화 제1호

이 책의 표지 그림은 위 도판 상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해설은 본문 3-4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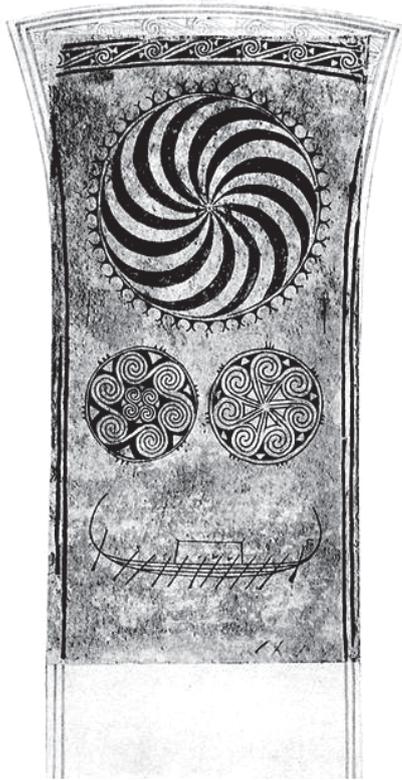


그림 1. 브로 교회 제1호

그림 1. 브로 교회 제1호(Bro Kirche I). 스웨덴 고틀란드의 브로 교회 남서쪽 모퉁이 벽에 박아 넣은 석회석 석판. (1) 대원형 무늬: 바깥 광륜(廣輪)을 제외하고 직경 68cm. (2) 소원형 무늬: 직경 각 34cm, 35cm

출처: 고틀란드 석각화. 제1권, 표 5, 도판 11*(도판 웹주소: http://en.wikipedia.org/wiki/Bro_church, Gotland; http://de.wikipedia.org/wiki/Kirche_von_Bro)

* 고틀란드 석각화. 수집 및 조사: 가브리엘 구스타프손, 프레데릭 노르딘. 도해: 올로프 쇠를링. 촬영: 파이트-엘. 발행인: 수네 룬드퀴비스트. 제1권: 스톡홀름 1941, 제2권: 스톡홀름 1942. (Gotlands Bildsteine: Gesammelt und untersucht von Gabriel Gustafson und Frederik Nordin, Mit Zeichnungen von Olof Sorling, Photographien von Harald Faith-Ell, Nach erneuter Durchsicht und Ergänzung des Materials herausgegeben von Sune Lundquist. Bd. I, Stockholm 1941, Bd. II, Stockholm 1942.)



그림 2. 클린테 훈닝게 제1호

그림 2: 클린테 훈닝게 제1호(Klinte Hunninge I). 고틀란드의 클린테 훈닝게 지방에서 발견된 기념비적인 석각화. 높이 284cm, 최대폭 158cm, 두께 20cm. 조성 700년경. 발견 1860년경.

상부면(上部面)(머리 부분): 방패와 창을 든 작은 기사의 기마상(騎馬像). 그 위쪽: 싸우는 두 전사(戰士). 왼쪽에 거의 옆드린 자세의 (살해당한?) 남자는 손에 반지를 들고 있다. 오른쪽에 (뿔잔을 손에 든?) 여자, 그 아래에 한 마리의 개가 보인다.

장면의 의미: 사자(死者)의 발할라 입성 또는 시구르드(『니벨룽겐의 노래』의 주인공 지크프리트) 영웅담. 줄 장식 횡선 아래의 배에 방패를 (그리고 칼을?) 든 7명의 전사가 타고 있다. 왼쪽 파도 속에 새겨진 직사각형 우리가 보이고, 그 안에서 바닥에 누운 남자(독사굴에 갇힌 군나르?)가 뱀들과 싸우고 있다. 오른쪽에서 한 여자가 뱀을 잡으려 하고, 왼쪽 아래의 여자는 뱀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단의 조금 더 큰 직사각형 안에 여섯 채의 합각지붕 집들이 보이고, 그 위쪽에 활과 화살을 든 두 전사와 소 한 마리가 있다. 왼쪽: 한 남자가 아마도 화살에 맞아 쓰러지려 하고, 그 아래쪽의 사내는 벌써 죽어 누워 있다. 그 아래에 다시금 합각지붕. - 배 아래쪽에 묘사된 장면들은 필시 (상단 머리 부분의) 사자에 대한 복수를 촉구하는 내용인 듯하다.

출처: 고틀란드 석각화, 제1권, 표 52, 도판 128



머리말 v

고예다

I. 신화: 신들의 노래 번역: 최윤영 1

1. 예언녀의 계시(뵐루스파 Völuspa) 5

2. 그림니르의 노래(그림니스말 Grimnismal) 21

3. 바프트루드니르의 노래(바프트루드니스말 Vafthrudnismal) 36

4. 오딘의 루네 마법(오딘의 흐라프나갈드르 Hrafnagaldr) 49

5. 벡탐의 노래 혹은 발드르의 꿈(벡탐스크비다 혹은 발드르스 드라우마르
Vegtamskvidha oder Baldrs draumar) 56

6. 지존자의 노래(하마말 Havamal) 62

 [6.1] 제1부 62

 [6.2] 로드파프니르의 노래(Loddfafnirs Lied) 87

 [6.3] 오딘의 루네 노래(Odins Runenlied) 94

7. 하르바르드의 노래(하르바르드스리외드 Harbardslíod) 101

8. 휘미르의 노래(휘미스크비다 Hymiskvida) 112

9. 에기르의 주연(酒宴)(외기스드레카 Oegisdrecca) 122

10. 트림의 노래 혹은 망치 찾아오기 (트림스크비다 혹은 하마르스헤임트 Thrymskvida oder Hamarsheimt)	139
11. 알비스의 노래(알비스말 Alvismal)	147
12. 스키르니르의 여행(스키르니스피르 Skirmisför)	156
13. 그로아의 소생(그로갈드르 Grogaldr)	167
14. 폴스비드르의 노래(폴스빈스말 Fiölsvinnsmal)	171
15. 리그르의 노래(리그스말 Rigsmal)	183
16. 흰들라의 노래(흰들루리오드 Hyndluliod)	194

고예다

II. 영웅전설: 영웅들의 노래 번역: 김길웅

17. 뵐룬두르의 노래(뵐룬다르크비다 Völundarkvida)	209
18. 흐르바르드의 아들, 헬기의 노래 (헬가크비다 흐르바르드소나르 Helgakvida Hjörvardssonar)	220
19. 훈당을 죽인 헬기의 노래 제1곡 (헬가크비다 훈딩스바나 퀴리 Helgakvida Hundingsbana fyrri)	233
20. 훈당을 죽인 헬기의 노래 제2곡 (헬가크비다 훈딩스바나 외누르 Helgakvida Hundingsbana önnur)	247
21. 신포틀리의 종말(신포틀라로크 Sinfjötalok)	263
22. 파프니르를 죽인 시구르드의 노래 제1곡 혹은 그리피르의 예언. 첫 번째 시구르드 노래(시구르다르크비다 파프니스바나 퀴르스타 에드하 그리피스파 Sigurdarkvida Fafnisbana fyrsta edha Gripisspa)	265
23. 파프니르를 죽인 시구르드의 노래 제2곡. 두 번째 시구르드 노래 (시구르다르크비다 파프니스바나 외누르 Sigurdarkvida Fafnisbana önnur) ..	278
24. 파프니르의 노래(파프니스말 Fafnismal)	288

25. 시그르드리파의 노래(시그르드리포말 Sigdrifomal)	299
26. 브뤼힐드의 노래 단편(斷片) (브로트 아프 브뤼힐다르크비다 Brot af Brynhildarkvida)	311
27. 파프니르를 죽인 시구르드의 노래 제3곡. 세 번째 시구르드 노래 (시구르다르크비다 파프니스바나 트리다 Sigurdarkvida Fafnisbana thridja)	316
28. 브뤼힐드의 저승길(헬레이드 브뤼힐다르 Helreid Brynhildar)	333
29. 구드룬의 노래 제1곡(구드루나르크비다 퀴르스타 Gudrunarkvida fyrsta)	337
30. 니플룽들의 살해(드라프 니플룽가 Drap Niflunga)	344
31. 구드룬의 노래 제2곡(구드루나르크비다 외누르 Gudrunarkvida önnur)	345
32. 구드룬의 노래 제3곡(구드루나르크비다 트리다 Gudrunarkvida thridja)	356
33. 오드룬의 탄식(오드루나르그라트르 Oddrunargratr)	359
34. 고(古) 아틸라 노래(아틀라크비다 Atlakvida)	367
35. 신(新) 아틸라 노래(아틀라말 Atlamal)	378
36. 구드룬의 사주(使噓)(구드루나르호빗트 Gudrunarhövöt)	401
37. 함디르의 노래(함디스말 Hamdismal)	407

후기 번역: 임한순	415
------------------	-----

에다 문학	419
-------------	-----

• 고(古)에다	421
전승	421
왕실 필사본 가사집의 생성	422
언어	423
언어 성과(켄닝가르: 우회어법)	424
서술 형식	425

세계상	425
두운	426
질[연] 형식	427
[시가별 해제]	
신들의 노래	429
영웅들의 노래	436
• 신(新)에다	453
1. 켈피의 환상(幻像)[켈파긴닝 Gylfaginning]	453
2. 시문학 언어, 시어법[스칼드스카파르말 Skaldskaparmal]	454
3. 시행 목록[하타탈 Hattatal]	455
독일어판 원본에 관하여	455
카를 짐록(Karl Simrock)과 그의 역사	455
색인(만프레트 슈탕에)(번역: 김길웅)	457
그림 해설(만프레트 슈탕에)(번역: 임한순)	491
[해설]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배경과 구조(임한순)	497
[논문] 유럽의 신화와 민담(임한순)	537
참고문헌(임한순)	563

I

고에다

신화: 신들의 노래



그림 3. 카를스루에 기사상. 알레만족 고분에서 출토된 원형 걸이장식
소장: 독일 카를스루에 바텐 주립박물관



그림 4 도판 웹주소:

<http://kmb.raa.se/cocoon/bild/raa-image/16000300035388/normal/1.jpg>



그림 4. 알스코그-티엔비데 석각화 제1호

위 그림은 훼손된 부분을 보수 및 보완한 것이다. 상부에 검을 들고 팔각마(八脚馬) 슬레이프니르 Sleipnir를 탄 기사는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 Odin이다. 그 앞에 바이킹 시대의 옷을 입은 발퀴리 Valkyrie가 오른손에 아마도 빨잔을 들고 기사를 맞이하고 있다. 왼쪽에 오딘이 데리고 다니는 개가 보인다. 오딘 위쪽에 죽은 전사가 넘어져 있고, 그 위로 창이 보인다. 전사와 창이 가리키는 반원형 건물은 죽은 전사들이 들어가는 발할라 Valhalla일 것이다. 개 위쪽에 남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오른쪽은 남자 전사, 왼쪽은 다시금 빨잔을 든 발퀴리로 추정된다.

석판 하부에 새겨진 거대한 바이킹 선에 전사 아홉이 항해하고 있다. 배 우측 가장자리 무늬선과 배 사이에 루네 문자로 쓰인 비문 띠가 비스듬히 이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친족을 위해 출정하였다가 전몰한(?)] 효롤프 Hjolulf(요롤프 Jonulf)를 기념하여 그 형제가 세우다.” 효롤프는 ‘검 늑대’ Schwert Wolf(sword wolf)라는 뜻이다.

이 석각화에 대해서는 이설도 있다. 빌승족 전설의 영웅 시구르드 Sigurd가 준마 그라니 Grani를 타고 규쿱족을 찾아오고, 브린힐드 Brynhild 또는 그림힐드 Grimhild가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 요약

- 국가: 스웨덴
- 지역: 고틀란드 섬, 알스코그
- 발견 장소: 탕비데
- 유적 명칭: 알스코그 탕비데 제1호
- 유형: 석각화
- 기법: 부조(浮彫)
- 소재: 석회암
- 크기: 높이 1.74m, 폭 1.21m, 두께 0.3m
- 문화사적 배경: 바이킹 시대
- 조성 연대: 8-12세기
- 소장 기관: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역사박물관
- 문서실: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역사박물관, 문서 제4171호
- 발견 연도: 1844
- 발굴 장소 지도 링크
- 한국어 지도 <https://maps.google.de/maps?q=gotland&ic>
- 영어 지도 http://www2.rgz.m.de/Navis2/Home/OutputDE.cfm?PlotOnMap=yes&Alskog=yes&ObjectCode=SE_00013

• 그림 및 해설 참고

게르만 고대문화 백과사전. 수정증보 제2판, 하인리히 베크 외 편, 베를린/뉴욕, 1973~. 제1권, 표 18. [Reallexikon der Germanischen Altertumskunde. Begr. von Johannes Hoops. 2., vollig neu bearb. u. erw. Aufl., hrsg. v. H. Beck u. a., Berlin/New York 1973 f. (= RLG), Bd. 1, Tafel 18.]

http://t3.gstatic.com/images?q=tbn:ANd9GcRvax25rGOLPXU0kaNj0r5wdmNLpitiQ34nr_Xpnh4LKtiefjFWw

<http://www2.rgz.m.de/Navis2/Home/SingleObjectOutputDE.cfm?ObjectName=AlskogTjanganvide1>



1. 예언녀의 계시

(뵐루스파 Völuspa)

1

조용히 들으시오,
헤임달¹ 신족의
천부(天父)²의 위업을
내가 아는 태고의

고귀하신 분들이여,
높고 낮은 자손이여.
전파하려 하노니,
오랜 전설이니라.

2

거인들을 기억하니
옛날 옛적 이 몸을
아홉 세계 내가 아오,
땅속에 깊이 박힌

태초에 탄생하여
길러 주신 분들이요.
아홉 줄기 뻗치고
거목³ 줄기 내가 아오.

3

먼 옛날 태초에
모래도 바다도

위미르가 살았더니,
소금물도 없었고,

1 '밝게 비추는 자라는 뜻의 신으로, 아홉 자매에게서 출생했다.

2 최고의 신 오딘.

3 세계수(世界樹) 위그드라실 Yggdrasil.

대지도 그 위에
입을 벌린 심연만 있고

하늘도 없었으며
폴조차도 없었더라.

4

뵈르의 아들들이
마침내 거대한
남녘의 태양이
땅에서는 초록빛

대지를 들어 올려
미드가르드를 창조하니,
암벽 위에 비치고,
폴들이 자라더라.

5

남녘에 비치는 해,
하늘에서 천마(天馬)를
어디에 자리할지
제가 가진 위력을
별들도 제자리를

둥근 달의 동반자
오른손에 잡았어도
태양은 몰랐고,
달도 알지 못했고,
정하지 못했더라.

6

그리하여 신들께서
어찌하면 좋을꼬
어둔 밤과 새 달에
아침과 낮이라
저녁과 밤으로

판관으로 좌정하여
서로 의논하셨으니,
이름을 지어 주고
이름을 붙이고
시간을 정하셨더라.

7

이다 평원 너른 들에

아스⁴ 신들 모여들어

4 주요 신족으로 아스 신(Ase, 복수: 아젠 Asen. 고대노르웨이어: āss)과 바니르 신(Wane, 대개 복수: 바넨 Wanen. 고대노르웨이어: vanr)이 있다.

궁궐이며 신전을
(공력을 기울여
화덕을 만들고
값진 보물, 집계, 연장

드높이 지으시니,
온갖 것을 시험했다.)
쇠붙이를 단조하여
다 갖추어 만들었다.

8

신들은 궁궐에서
금붙이도 아직은
거인들의 나라에서
마력 지닌 세 딸이

주사위를 즐기고
아쉽지 않았더라,
투르스⁵ 거인의
찾아올 때까지는.

9

그리하여 신들께서
어찌하면 좋을꼬
브리미르의 피를 뽑고
누가 말아 만들꼬,

판관으로 좌정하여
서로 의논하셨으니,
블라인의 손발 엮어
난쟁이 족속을?

10

그리하여 생겨난
족속 최고 일인자요,
인간 모습 난쟁이를
두린의 말에 따라

난쟁이 모드소그니르,
그다음에 두린이라.
이들이 더 만드니,
흙으로 빚었더라.

11

뉘와 니디,

노르드리와 수드리,

5 투르스 Thurs(복수: 투르젠 Thursen)는 대개 신과 인간에게 적대적인 거인(족)의 한 명칭. 망치를 무기로 쓰는 토르가 거인을 제압한다.

아우스트리아와 베스트리,
나르와 나인,
비푸르, 바푸르,
안과 아나르,

알티요프르와 드발린
니핑그르와 다인,
뵘부르와 노리,
아이와 요드비트니르였다.

12

베이그르와 간달프르,
테크르와 토린,
나르와 뉘라드르이니
레긴과 라스비드르까지

빈달프르와 트라인,
트로르와 비트르, 리트르,
이제 난쟁이들을
제대로 호명했다.

13

필리와 킬리,
헤프티와 빌리,
빌링그르와 브르니,
프라르와 호른보리,
아우르방그르와 야리,

폰딘과 날리,
하나르와 스비오르,
빌드르와 부리,
프레그르와 로니,
에이킨스칼디.

14

이제는 드발린 무리의
로파르까지 이르는
암벽과 협곡에서
지상의 평지로 오려

난쟁이들 가운데
계보를 셀 차례로구나.
아우르방의 심연에서
애를 쓴 자들이었다.

15

그들은 드라우프니르와
하르와 하우그스포르,
스키르비르와 비르비르,

돌그트라시르,
흘레방그르와 글로이,
스카피드르와 아이,

알프르와 잉비,

에이킨스칼디이며,

16

피알라르와 프로스티,
헤리와 회그스타리,
인간들이 지상에서
로파르 조상의

핀나르와 긴나르,
흘리오돌프르와 모인이었다.
살아가는 동안
긴 계보는 기억되리라.

17

신들의 모임에서
힘이 세고 너그러운
이들이 바닷가에
쓰임새도 목적도 없이

세 신이 밖으로 나가니
아스 신들⁶이었다.
아스크와 엠블라 나무가⁷
서 있음을 보았노라.

18

나무들은 영혼이며
혈기며 움직임이며
오딘이 영혼을
로두르는 혈기와

감각도 없었고
생동하는 색(色)⁸도 없었다.
회니르는 감각을
생동하는 색을 주었다.⁹

19

물푸레나무를 아니
높다란 나무는

위그드라실¹⁰이 이름이라
하얀 안개로 덮였으니

6 셋이란 오딘과 회니르, 로두르를 가리킨다.

7 아스크는 떡갈나무를 뜻하고 엠블라 역시 나무 이름이다.

8 외양을 말한다. 역자 주.

9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10 세계수를 뜻하며 “오딘의 말[馬]”이라는 뜻이다.

이슬이 굴러 나와
우르드¹¹의 샘 위에서

계곡으로 떨어졌다.
언제고 푸르렀다.

20

그곳 우듬지 아래
세 명의 지혜로운
첫째는 우르드,
나무에 금을 그었고,¹²
인간 종족 대대로
앞날을 예언하며

호수에서부터
여신들이 나왔구나.
둘째는 베르단디로
셋째는 스클드였다.
명줄을 확정하고
운명을 결정했다.

21

늪은 아스신(오딘)이
이 몸은 홀로
어이 질문하시려고?
당신의 눈 숨긴 곳까지

생각하며 다가올 때
바깥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캐어물으시나?
모조리 알고 있노라.

22

저 널리 유명한
군신(軍神)이 맡겨 놓은
아침마다 마셨노라,¹³

미미르의 샘이구나.
꿀술을 미미르는
그 의미를 아는가?

11 우르드는 운명의 세 여신 가운데 하나이다.

12 운명을 나타내 주는 루네 문자를 나무에 새겼다는 뜻이다.

13 군사들의 신 오딘은 미미르 거인의 지혜의 샘물을 마시려고 대가로 자신의 한쪽 눈을 주었다.

23

귀한 금언(金言)과
목걸이며 반지들을
온 세상을 나는

냉철한 머리를 얻고자
군신이 거인에게 주었다.
멀리 널리 보았노라.

24

신들의 모임에 가고자
말 타고 준비함을
스쿨드가 방패 들고
군과 힐드,
발퀴리가 되어
헤리안¹⁴의 처녀들을

멀리서 발퀴리들이
내가 보았구나.
스콰굴이 다음이며
귄들과 게이스콰굴이었다.
세상을 두루 다니는
지금 말한 것이노라.

25

세상에서 처음으로
신들이 굴베이그¹⁵를
지존자(오딘) 궁궐에서
세 번을 죽였지만
다시 또다시

종족 전쟁이 일어나니
창으로 찌르고
휘휘 태웠다.
세 번을 살아 나와
목숨을 보존했다.

26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니
악한 마술을 써서

헤이드라 불렀다.
마법을 부렸으며
영혼을 앗아가니

14 오딘을 뜻한다.

15 굴베이그는 금의 힘이라는 뜻이며, 금을 여자로 의인화했다. 굴베이그는 그때까지 순진무구했던 신의 세계에 들어와 금의 힘으로, 재물로 유혹하는 마녀이다.

색인

[주요 이름, 어휘, 용어]

(편역: 김길웅)

가름 Garm: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개. ↑로키의 아들이자 신들의 주적인 ↑펜리스 늑대와 동일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종말 때, 가름은 결박을 풀다.

강그라드(르) Gangradr, (영: Gangrad)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조언자”): ↑바프트루드니르와 지식 논쟁을 벌일 때 오딘이 사용한 이름.

강글레리 Gangleri: ↑겔피의 다른 이름.

강물의 말 (독: 플루트로스 Flutross): 배.

게르 Geer: 원래 “투창”.

게르다 Gerda (“올타리 안에 보호받는 여자”): 거인 ↑귀미르의 딸이자 신 ↑프레이르의 아내. 그녀는 불꽃이 타오르는 올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프레이르는 ↑스키르니르를 시켜 그녀에게 구혼하게 한다. 게르다는 주로 대지의 여신으로 간주된다.

게리 Geri와 프레키 Freki (“탐욕꾼”과 “탐식가”): 오딘을 수행하는 두 마리의 늑대.

게이로드 Geiröd, (영: Geirrod) (“방패”): 거인 가운데 하나로 ↑오딘의 양아들. ↑토르의 체력을 살피기 위해, 그에게 불에 달군 쇠창살을 던진다. 토르는 철장갑을 낀 손으로 이를 붙잡은 뒤 되던져 게이로드와 대들보를 뚫어 버린다.

게피온 Gefion (“주는 여자”): ↑아스 신족의 일원으로 결실과 보호의 여신. 오딘이 북쪽 지역을 정찰하라는 임무를 주어 그녀를 파견한다. 그녀는 네 아들을 소로 둔갑시켜 쟁기에 맨다.

고트 Gote, 고트족 Goten: 호전적인 민족 혹은 개별적인 투사를 가리키는

듯하다.

구드룬 Gudrun, (영: Gudrun): ↑기우쿠와 ↑그림힐드의 딸. ↑군나르, ↑호그니 및 ↑구토름의 여자 형제. 어머니 ↑그림힐드의 종용에 따라 ↑시구르드와 결혼한다. 시구르드가 살해될 때 아들 시그문드는 겨우 네 살이었으나, 이 아이도 피살당한다. 구드룬은 이후 덴마크로 가서 하콘의 누이 토라의 집에서 3년 반 동안 산다. 그림힐드가 재차 종용하자, 그녀는 마음에도 없이 아틸라와 혼인한다. 구드룬은 니플룽족이 몰락할 때, 아들 ↑에르프와 ↑에이틸을 죽이고 또 남편까지도 살해한다. 그것은 군나르와 호그니를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이어 구드룬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녀는 ↑요나쿠르와 세 번째 결혼하여, 세 아들 ↑쇠를리, ↑에르프, ↑함디르를 낳는다. 구드룬과 시구르드 사이의 딸 ↑스반힐드가 요르문렉에 의해 살해되자, 그녀는 함디르와 쇠를리에게 복수를 사주한다.

구드문드 Gudmund: 그란마르의 아들 가운데 한 명. 자기 종족과 헬기 사이에 해전이 벌어지자 그는 신포틀리와 연쟁을 벌인다.

구스트르 Gustr: ↑안드바리의 다른 이름인 듯하다.

구토름 Gutthorm, (영: Guttorm): ↑그림힐드의 아들이자 기우쿠의 의붓아들이며 구드룬, 군나르, 호그니의 이복형제. 군나르와 호그니는 그를 사주하여 시구르드를 죽이게 한다.

군나르 Gunnar: ↑그림힐드와 ↑기우쿠의 아들이자 구드룬, 호그니, 구토름의 남자 형제. 그는 아틸라의 자매인 ↑오드룬보다 ↑브린힐드와의 결합을 더 선호했지만 그녀와 혼인할 수는 없었다. 그를 대신하여 결혼한 ↑시구르드는 사태가 발각되어 목숨을 잃는다. 군나르는 글라움 비르와 재혼한다. 아틸라가 ↑기우쿵족/니플룽족을 훈족의 궁정으로 초대하는데, 이것은 군나르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는 아틸라에게 시구르드의 유산(↑보물)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최후의 기우쿵족(니플룽족)으로 남아 하프를 연주하며 뱀굴에서 죽어 간다.

군로드 Gunnlöd, (영: Gunnlod) (“전쟁에의 초대”): 여자 거인. ↑수통의

딸. 시적 재능을 부여한다고 믿었던 스칼데의 꿀술을 지킨다. 오딘은 뱀의 모습을 하고 군로드에게 잠입하여 그녀를 유혹한다. 마침내 그는 꿀술을 마시고 독수리로 변신하여 도망간다.

굴뢴드 Gullrönd: ↑기우쿠의 딸.

굴링크ambi Gullinkambi (“황금빛”): 세상의 종말을 울음으로 알리는 닭.

굴베이그 Gullweig (“황금의 음료” 혹은 “황금의 힘”): 마녀 혹은 예언녀. 황금에 대한 탐욕을 의인화한 표현. 그녀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를 타고 태어났다.

굴팍시 Gullfaxi (“황금갈기, 황금말”): 거인 ↑흐룽니르의 말. 오딘은 훗날 이 말을 아들 ↑마그니에게 선사한다.

궁니르 Gungnir (“흔들리는 사람”): 목표물을 놓치는 법이 없는 오딘의 창. 난쟁이들이 만들었다. 궁니르는 이 세상에 전쟁을 가져다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딘은 궁니르를 휘둘러 전사를 죽이고 죽은 영혼을 발할라로 데리고 간다.

귀미르 Gymir (“바다”): 바다의 거인 ↑에기르의 다른 이름.

길피 Gyfi (“바다, 사나운 파도”): 스웨덴의 신화적인 임금. 아스 신족에게 스칸디나비아의 지배권을 넘겨준다.

그니타헤이디 Gnitahcide (“그니타 황무지”): 파프니르가 용이 되어 보물을 가지고 사는 곳으로, 그곳에서 시구르드가 파프니르를 살해한다. 아일랜드 출신 N. 베르그손은 로마 성지 순례 여정을 묘사하면서 역시 그니타 황무지를 언급했다. 베르그손에 따르면 시구르드가 그곳에서 용을 쳐 죽인다.

그니파헬리르 Gnipahellir (“위에 매달려 있는 동굴”): 지하에 있는 저승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동굴. 그곳은 ↑가름이라는 개가 지킨다. 세상이 멸망할 때, 이 개는 사슬을 풀고 뛰쳐나온다고 전해진다.

그라니 Grani: 시구르드의 말. 시구르드는 이 말을 ↑할프렉 왕에게서 받는다.

그란마르 Granmar: 싸움에 굶주린 막강한 왕. 세 아들 ↑회드브로드, ↑구

드문드, 스타르크아드르와 함께 빌승족(↑훈딩을 살해한 헬기 1)에 맞서 싸운다.

그람 Gram: 시구르드의 칼. ↑난쟁이 레긴과 그의 양아버지가 제작한 칼. 이 칼은 매우 잘 들어서, 강물에 떠 있는 양털까지도 두 동강을 낼 수 있다. 이 칼을 써서 시구르드는 레긴의 모루를 두 동강 내고, ↑파프니르를 살해하며 보물을 차지한다. 이후 그는 레긴을 죽인다. 그는 또 그람으로 ↑시구르드리파의 갑옷을 벗기고 그녀를 잠에서 깨운다. 군나르를 위해 ↑브뤼힐드에게 구애한 후, 시구르드는 혼례식날 밤에 순결의 상징으로 이 칼을 자신과 여자 사이에 놓아둔다. 마침내 그는 살인자 구토름에게 이 보검을 던져 그를 두 조각 내어 죽인다.

그로아 Groa: 예언녀 혹은 성장(成長)의 여신. 그녀의 아들 ↑스빔다그르가 죽은 그녀를 깨워 예언을 하게 한다.

그로티 Grotti: 신화적인 물레방아. ↑프로디의 평화.

그리피르 Gripir: 왕. ↑에일리미의 아들, 시구르드의 삼촌. 현자로 통하며, 앞일을 훤히 꿰뚫어본다.

그림니르 Grimnir (“가면 쓴 자”): ↑오딘의 별명 가운데 하나.

그림힐드 Grimhild: 기우쿠의 아내이자 구드룬, 군나르, 호그니와 구토름의 어머니. 그녀는 자기 아들 군나르를 브뤼힐드와 결혼시키기 위해 시구르드로 하여금 대신 구혼하게 하고, 동시에 망각의 약(사랑의 묘약)을 써서 원래 브뤼힐드와 혼인하기로 되어 있던 시구르드가 자기 딸 구드룬과 혼인하게 만든다. 시구르드가 죽은 후 그림힐드는 보상으로 황금을 제시하고 다시금 망각의 약을 사용하며 구드룬과 아틸라의 혼인을 성사시킨다.

글라시르 Glasir의 황금: 글라시르(“번쩍이는 자”)는 ↑아스가르드에 있는 ↑발할라의 대문 앞에 무성한 황금낙엽 숲을 가리킨다.

글라움뵈르, 글웸베라 Glaumwör, Glömwera, (영: Glaumvor): 군나르의 아내. (군나르의 첫 아내는 ↑브뤼힐드). 글라움뵈르는 아틸라를 보는 순간 니플룽족이 몰락할 것임을 예견한다.

기밀리, 기밀리의 언덕 Gimili (“불이 침범할 수 없는 곳”): 황금으로 장식한 홀. 그 안에는 말세에 구원받은 인간들이 살아간다. 스노리는 기밀리를 기독교식으로 해석하여, 선인들이 사후에 머무는 거소로 풀이했다.

기아플뢰그 Gíaflog 기우쿠의 누이. 다섯 남자와 두 딸, 세 자매와 아홉 명의 남자 형제를 잃는 불운의 여자이다.

기우쿠, 규쿠 Giuku, (영: Giuki)와 기우쿱족 Giukung (니플룽족): 그림힐드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구드룬, 군나르, 호그니, 구드나이, 구트호름(의붓자식)이다.

긴능가가프 Ginnungagap: 창세 이전, 우주의 근원 공간의 이름. 북쪽으로는 추위와 폭풍이 엄습하여 얼음장 같은 ↑니플헤임이 생성된다. 남쪽으로는 온화하여, 불같은 무스펠헤임이 만들어진다. 불이 얼음을 덮치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거인의 원형인 ↑위미르가 이렇게 하여 탄생한다. 초기의 신들이 위미르를 긴능가가프 한가운데로 데려가 그 몸으로 대지를 만들었다.

나글파르, 나글파리 Naglfar, Naglfari, (영: Naglfari) (“손톱의 배”, “죽은 자들의 배”): 세계가 몰락할 때 항해를 시작하여, 신들에 맞서 싸우도록 무스펠의 아들들을 태우고 간다. 최고, 최대의 배로 알려졌으며, 죽은 자들의 자르지 않은 손톱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빌루스파에 따르면 로키가, 스노리에 따르면 거인 흐뤘미가 이 배를 몬다.

나스트란드 Nastrand, (영: Nastrand) (“죽은 자의 해안”): 북유럽에 위치한 신화적인 장소. 지붕에서 독이 떨어지는 그곳의 흙에는 맹세를 지키지 않은 자들과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난쟁이 Dvergr, (영: Dwarf, 독: Zwerg): 에다 문학에는 난쟁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름만 100개가 넘는다. 이들은 매우 지혜로운 존재로 손재주가 뛰어나다. 신들의 장신구들은 거의 이 난쟁이들이 만드는데, 토르의 망치, 오딘의 창, 헤임달의 반지, 프레이야의 목걸이, 프레이르

[해설]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배경과 구조

임한순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유럽 신화는 1) 세계 신화의 고전에 해당하는 ‘그리스·로마 신화’ 이외에 2) 갈리아 지방과 브리타니아 도서 지역에 분포했던 켈트족의 신화(‘켈트 신화’), 3) 스칸디나비아와 독일어권 지역의 ‘게르만 신화’(또는 ‘북유럽 신화’)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북유럽 및 동유럽 신화에는 본질적으로 게르만족 계통의 신화와 슬라브족 계통의 신화가 혼합되어 있다. 게르만족 집단에는 도이치인, 네덜란드인, 덴마크인, 스웨덴인, 노르웨이인, 아이슬란드인, 영국인 및 이들과 닮은 기타 민족들이 속하고, 슬라브족은 러시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신화 전통에는 이 밖에도 동해 Ostsee 연안의 프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사람들도 기여했으며, 좀 더 북쪽 지역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라플란드족이 북유럽 신화 형성에 가담했다. 최단 북방 지역의 민족들은 핀란드의 라플란드족과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러시아의 사모예드족이었다. 원래 이들 두 부족은 오랜 옛날에 유럽과 아시아의 툰드라 지대 전역에 거주하던 우랄족의 일부가 흩어져 남았던 것인데, 그들의 종교적 경향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베리아 민족들의 경우와 비슷했다. 이 모든 전통을 편의상 ‘북유럽 신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해진 북유럽 및 동유럽 신화의 대다수는 스칸디나비아 또는 아이슬란드에서 유래한다. 그밖에 대부분의 슬라브 신들은 겨우 이름만 남겼을 뿐이다. 유럽 전래의 신화들은 특히 기독교에 의해 축출당했다. 러

시아에서 블라디미르 대제후가 989년에 그리스정교로 개종하자 키예프에 서는 이교 신전들이 약탈당했다. 다행히도 당시의 역사 기록자들은 이 사건에 관한 보고에서 천동의 신 페루누 Perunu 또는 가축의 신 벨레스 Veles 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상적이거나 이러한 보고마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슬라브 신화에 관해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 블라디미르의 이교적 출신과 과거 행적도 신화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는 스웨덴 출신이었고, 드네프르 Dniepr 강변의 ‘루스’(러시아) 국가인 키예프 제국은 바이킹족 이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지배 아래 들어갔다. 슬라브족의 천동신 페루누는 그러니까 북유럽 토르 신화의 일부 요소를 이미 흡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킹족이 도착한 860년경 이전에 슬라브족 전래의 망치신이 분명 있었겠으나, 북유럽의 전사들이 노브고로드와 키예프에 미친 강력한 영향은 필연적으로 러시아 신과 그에 상응하는 게르만 신의 동일화를 초래했다. 바이킹족의 존재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당시 아랍 여행자 이븐 파들란 Ibn Fadlan의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는 922년 볼가 강에서 어느 루스[러시아]족 지배자의 장례가 선상(船上) 화장으로 치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발칸 반도의 슬라브인들은 기독교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오랫동안 이슬람의 지배도 받았다. 그들이 슬라브 영향권에서 장기간 소외된 것은 발칸 신화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지역 신화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고, 구전되던 전래 설화의 자리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담(聖談)이 들어섰다. 발트지역 신화의 주요 신들에 관해서도 대략 상상이 가능하지만 신화 자체는 오늘날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우연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유럽의 신화는 애석하게도 모두 발트 신화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 켈트 신화는 다행히도 아일랜드의 기독교 수도승들이 옛 전설의 기록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전승될 수 있었다.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제국의 서쪽 지역을 유린한 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 신화 유산도 켈트 신화와 마찬가지로 수도원 장서관들에 보존되었다. 게르만 신화의 핵심 부분 역시 해당 지역의 기독교화 이후에 기록되었다. 아이슬란드의 학자 겸 정치가였던 스노

리 스투를루손 Snorri Sturluson이 『에다 Edda』를 비롯한 신화 자료의 보존에 부심하지 않았더라면 게르만 신화는 대부분 인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스노리 스투를루손은 13세기 초에 게르만 신들의 세계에 관한 일종의 시작(詩作) 지침서를 저술하면서 고대 북유럽 신화 『에다』를 상세히 해설했다. 그는 750-1050년경의 바이킹 시대 전설들을 회상했다. 바로 이 시기에 오딘, 토르, 프레이르 신의 영웅담이 강한 전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아직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던 덴마크인, 노르웨이인, 스웨덴인 등 용맹한 북유럽 사람들은 실새 없이 노략질과 정복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 바이킹 전사들은 대개 소규모 부대나 선원 집단을 조직했으며, 군사적 정복 전쟁, 교역을 위한 항해, 해적질 등을 앞두고 일시적으로만 큰 집단을 이루었다. 이따금 그들은 명망 있는 지도자 아래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다가 다시금 흩어지고는 했다. 대규모 육상 부대나 해상 함대가 구축되기도 했다. 예컨대 그들이 842년 프랑스를 공격하고 866년 잉글랜드에 침입할 때 그러했다. 뛰어난 조선 기술과 노련한 항해술에 힘입어 그들은 강과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

바이킹족의 공격으로 가장 큰 고통을 아일랜드 사람들이 받았다. “바다가 밀물처럼 쏟아 낸 외지인들이 아일랜드 전역을 뒤덮었으며, 항구와 해변과 성채들이 온통 노르만인과 해적의 물결로 가득하다”라고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 Ulster 지방의 연감에 기록되어 있다. 836년 바이킹족은 오늘날의 더블린에 항구적인 거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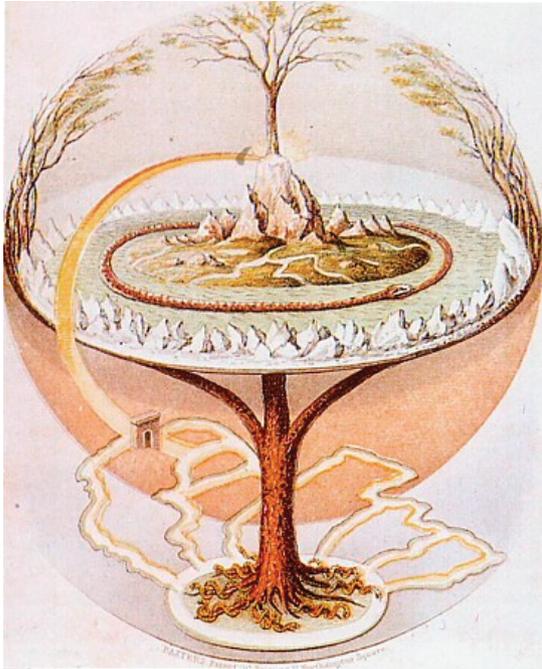
공격적인 바이킹 전사들이 애꾸눈 오딘 신의 영웅담을 즐겨 경청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게르만 신들의 왕 오딘은 전사자(戰死者)들의 아버지로서 각별한 매력을 지녔다. 이 신은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을 풍요의 여신 프레이야와 나누어 차지했다. 오딘은 또한 저 무시무시한 베르제르커 Berserker들을 고무했다. 벌거벗은 몸에 곰 껍질을 쓰고 싸운다는 이들 광포한 전사들은 일종의 인간 병기로서 거침없이 전투에 뛰어들다. 그러나 오딘 역시 전지전능한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라그나뢰크 Ragnarök(‘신들의 황혼’) 때에 펜리르라는 이름의 늑대가 최고신인 그를 통째로 삼켜

버린다. 호전적인 신들이 결국 모두 몰락하는 것은 북유럽 신화의 특징이자 그 담당자들이던 바이킹족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1. 창세신화와 우주관

태초에는 끝이 없는 황량한 심연만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창조 의 맹아가 움직임도 형태도 없이 들어 있었다. 심연 속에서 빛의 나라 무스펠헤임과 어둠의 나라 니플헤임이 나뉘었다. 니플헤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얼어붙었는데, 남쪽의 무스펠헤임에서 불어오는 열기로 얼음이 녹자 그로부터 거인 위미르가 탄생했다. 얼음[물]과 불이 만나는 경계를 게르만 신화에서 는 긴농가가프 Ginnungagap(“하품하는/입 벌린 허공”)라 한다. 대립적인 두 힘이 중간 지대에서 만나 어우러져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최초의 생명체 위미르는 사악한 거인족의 아버지였다. 그다음에 아우두믈라 Audhumla 라는 암소가 나와서 이 거인에게 젖을 먹였다. 암소가 얼음 덩어리를 핥자 그 속에서 신의 모습을 한 부리 Buri라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아들 뵈르와 어느 거인의 딸 사이에서 세 아들 오딘, 빌리, 베가 태어났다. 이들이 최초의 거인 위미르를 공격해 죽인다. 그 몸에서 어찌나 피가 많이 쏟아졌는지, 거인족이 모두 빠져 죽고 베르켈미르만 살아남았다. 이 거인은 배를 타고 도망쳐 새로운 거인족의 시조가 되었다.

오딘을 비롯한 삼형제 신은 위미르의 시체를 심연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세상을 창조했다. 시체의 피로 바다와 강이, 뼈와 이빨로 산과 바위가, 머리카락으로 나무가, 두개골로 하늘이, 뇌로 구름이 각각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에 신들은 무스펠헤임에서 가져온 불꽃으로 별을 만들어 하늘에 달았다. 태양이 거처를 얻고, 달은 자신의 힘을 알게 되었다. 오딘은 난쟁이족을 만들어 땅과 바위 속에서 살게 했다. 이어 세 신은 해변에서 물푸레나무와 오리나무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각각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림 1] 위그드라실. 북유럽 고미술, 도해(1847)¹. 위그드라실의 거대한 가지들이 아홉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 무지개다리 ‘비프로스트’의 상단 밑에 신족과 정령들의 나라가 있고, 그 아래에 인간, 난쟁이, 바다 악령들의 세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 너머로 서리 거인들의 나라인 바깥세상(우트헤임)이 펼쳐져 있다.

오딘은 이들에게 영혼과 생명을, 빌리는 재능과 감정을, 베풀어 아름다운 용모와 언어와 감각을 주었다. 두 남녀에게서 인간 족속이 나와 미드가르드에서 살게 되었다.

1 그림 1: EM 251: Illustration, Nordische Antiquitäten 1847. [EM 251= Die Enzyklopädie der Mythologie. Klassisch, Keltisch, Nordisch. Arthur Cotterell. Genehmigte Lizenzausgabe EDITION XXL GmbH: Reichelsheim 2000. Übersetzung: Helene Baudon u. a. (Copyright: Annes Publishing limited, U. K. 1997), 251면].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한 그림은 여기에서와 같은 약자로 표기.

역주자 소개

임한순(任漢淳, Han-Soon Yim)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저술

Bertolt Brecht und sein Verhältnis zur chinesischen Philosophie (Bonn 1984), 브레히트 희곡선집(1, 2)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게르만어권의 신화와 민담(2002), 고대 디오니소스 축제와 관련한 한국 가면극과 단오제 (Das koreanische Maskenspiel und das Fest *Danbye* in Bezug auf die antiken Dionysien, Wien 2005)

최윤영(崔允瑛, Yun-Young Choi)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문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저술

한국문화를 쓴다—강용홀의 『초당』과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비교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서양문화를 쓴다—강용홀의 <동양 서양에 가다>와 이미륵의 <압록강에서 이자르강까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카프카, 유대인, 몸(민음사, 2012)

논문

Verschwiegene und schweigende Individuen im realistischen Roman (1996)(박사학위논문, Übersetzung der Wörtlichkeit. Einige Probleme der Übersetzung und des Schreibens bei Tawada (2010)

김길웅(金吉雄, Gil-Ung Ki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독문과 교수

저술

문화로 읽는 서양문학 이야기(아카넷, 2011), 독일문학과 예술[공저, 범우사, 2003(제1권), 2004(제2권)]

논문

시간의 문화적 기억: 크로노스/사투르누스의 문학적 이미지와 회화적 아이콘의 비교(2004)

● SNUPRESS 동서양의 고전

당시선 이병한·이영주 역해

송시선 류종목·송용준 역해

구북시화 조익 지음 | 송용준 역해

중용 김학주 역주

대학 김학주 역주

논어 김학주 역주

맹자 김학주 역주

구운몽 김만중 지음 | 김병국 교주·윙김

춘향전(남원고사) 원작 조정남 | 설성경 역주

한유산문선 오수형 역해

소동파사 소식 지음 | 류종목 역해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 지음 | 송낙헌 윙김

팡세 블레즈 파스칼 지음 | 김형길 윙김

바가바드기타 길희성 역주

더버빌 가의 데스 토머스 하디 지음 | 김보원 윙김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 박상섭 윙김

친화력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 오순희 윙김

안도라 막스 프리쉬 지음 | 김정용 윙김

에브게니 오네긴 푸슈킨 지음 | 최선 역주

잃어버린 환상 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 | 이철 윙김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임스 조이스 지음 | 나영균 윙김

에이즈 서정시 전집 1, 2, 3 김상무 역주

에다 임한순·최윤영·김길웅 역주

먼 옛날 태초에 위미르가 살았더라.
모래밭도 바다도 짠 물결도 없었고,
대지도 없었고 그 위에 하늘도,
입을 벌린 심연도 풀 한 포기도 없었다.

- 뵐루스파

북유럽 신화는 기록된 세계신화 가운데 그리스·로마 신화 다음으로 높은 완성도를 지녔다. 그 원본인 『고에다』(운문 에다)는 난해하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주제에서 명료하고 매력적이다. 여기에는 고도로 지적인 창조신화부터 일상생활의 자잘한 행동규범까지 담겨 있다. 대체로 신화는 보편적·근원적 진실을 담을 수 있고, 신화의 진실은 그러한 속성 때문에 자주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에다』 또한 이런 점에서 고대 게르만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며, 망각된 과거의 흔적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에다』 원본, 즉 『고에다』의 형식과 내용을 치밀하게 살피는 기초작업이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시도되지 않았다. 몇 가지 출판된 번역들은 스노리 스투를루손의 『신에다』(산문 에다)를 독서용으로 재구성한 번안본에 기초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 신화집의 본모습을 정확히 읽고 파악할 수 있도록 『고에다』를 국내 최초로 번역하되, 가급적 원전의 형식까지 반영하여 울문 번역을 시도하였다. 집중적인 원전 조사와 분석, 그리고 외국 학계로부터 얻은 자문 끝에, 스위스에서 1995년 간행된 독일어본을 번역 원본으로 정하였다. 이 원본은 19세기 독일의 명망 있는 학자이자 고대 문학 번역가 카를 짐콰의 1882년 '수정 8판'을 토대로 만프레트 슈탕에가 상세한 해설과 도해를 덧붙여 출간한 것이다. 번역은 책임번역자의 총괄 아래 세 사람이 분담하였으며, 일반 독자의 교양독서뿐만 아니라 학술적 사용가치도 중시하였다. 이런 뜻에서 이번 번역의 계기가 된 책임번역자의 연구논문(『유럽의 신화와 민담』,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특집 2002, 149면 이하) 일부를 발췌, 보완하여 부록에 포함시켰다.

값 44,000원



ISBN 978-89-521-3948-1

978-89-521-1192-0(세트)